

오피니언

금남로에서

김재열



우리나라에서 정치에 무관심하거든 쉽지가 않다. 변화무쌍한 합종연횡과 박진감이 국민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한 흥행요소를 완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높은 투표율이 그 사회의 정치적 건강성을 입증하는 징표는 아니다. 기권도 낮은 의미에서의 유권자 의사표시이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 만큼은 예외인 것 같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은 선거 무풍지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광역단체장 선거는 일찍부터 우열이 확연하게 드러난 데다 기초 자치단체와 의원 선거는 눈길을 잡아끄는 후보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

유권자 따로, 선거 따로

월부터 실시되면서 10%이상의 유권자 찬성으로 시·도지사를 소환할 수 있게 됐다. 소수 조직화된 세력에 의해 지방자치

는 충청과 전북지역 표를 의식한 여당의 중간 역 신설 공약으로 저속철로 전략할 처지다. 선거가 코 앞에 다가왔는데도 지지정당이 없는 유권자가 늘어나는 이상현상은 공천과 관련한 각종 잡음이 빚은 정치권

기 고

한 불신도 이제 떨쳐야 한다. 지방선거 출마자의 상당수가 전과자나, 세금 체납자가 많다느니 하는 과거의 부정적 보도가 지방자치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확산을 부채질했다.

적지 않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친환경 우수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토록

에이브러햄 링컨은 '투표는 탄환보다 강하다'고 했다. 정치인에게 유권자 심판이야말로 총알보다 더 무섭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투표용지 복권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4년 내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지방의원이 누구인지 모르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공작 착근을 기대하기 어렵다. 후보자의 신상이나 이력이 담긴 선거공보나 우편물도 꼼꼼히 살펴

시 설

평택사태 해결, 법치대응이 최선책이다

미군기지 확장·이전 반대 시위로 야기된 '평택사태'가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검찰이 시위자들의 구속영장

을 포획한 행위는 우리 사회가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이다. 주민 생존권 확보는 뒷전인 채 주한미군 철수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평택사태 해결의 첩경이다. 평택사태가 유혈사태까지 번진데는 일차적으로 정부 책임이 크다.

미군기지 이전은 한미 양국이 오랜 논의의 거쳐 결정된 것으로 반대측 헌법 소원도 이미 각하됐다.

가능할 발상이나 재판기간 동안 민간인을 군사시설에 수용해야 하는 등 현실적 어려움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시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은펜칼럼

김신희



법률용어에 인정신문(認定訊問)이란 것이 있다. 제1회 공판이 개시될 때 검사의 사전요지 진술에 앞서, 재판장이 피고를 향하여 그가 피고인이 틀림없는

한 과정 속에서 문화예술과 체육관련 교육은 당연히 실종되고 없다. 미국의 정치지도자들 경우를 보자. 저 유명한 케네디 대통령은 백악관 음

기 고

최호진



우리가 하나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살고 있을 때는 다른 패러다임을 가지고 생각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인

실이다. 그날의 감동을 떠올리며 '입양의 날' 제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가정의 달 5월에 한 가족(1)이 한 아동(1)을 입양하여 건강한 새로운 가족

문화예술교육이 없는 나라

은 것이다. 이런 관행은 우리 사회를 '명함'이 난 무한의 사회로 만들었다. 실제로 우리나라처럼 명함을 많이 주고받는 나라도 드물다고 한다.

이들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문화예술 교육은 거의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능 시험이나 대학별 고사에서 문화예술 관련 시험은 보지 않기 때문이다.

입양, 이제 몇몇하게 말하자

참가했던 강화를 잊을 수 없다. 공개입양부모들의 모임과 병행된 이 행사는 가슴으로 받은 아이와 배 아파

사고로 입양을 결정했으나 경제적 사정으로 망설여왔던 예비입양부모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며 아직껏 입양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닫힌 가족의 패러다임을 열린 가족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수 있는

참신한 엑스포 주제 '살아있는 바다와 연안'

2012년 여수엑스포의 주제로 '살아있는 바다와 연안'(The Living Ocean and Coast)이 선정됐다는 소식이다. 해양수산부와 전남도가 전문기관에 의뢰한 것이니 만큼 이를 주제로 삼은 많은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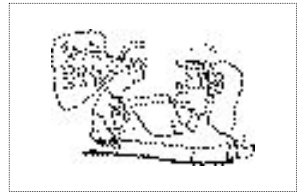
제와 맥락을 같이 하면서 진일보 한 것이라 평가하고 싶다. 1998년 풀투갈리 스페인 엑스포가 '해양, 미래의 유산'을 주제로 정한데 이어 2005년 일본 아이치 엑스포는 '자연의 지혜'를 주제로 내걸었다.

無等鼓

조선 최대 여성 CEO(최고 경영인)하던 제주지역 거상이었던 김만덕을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김만덕은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고 그 숫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여성 고용주는 10% 증가한 반면 남성은 6% 줄었다. 젊은 여성들이 취업보다 창업을 택하고 기존여성들도

여성 CEO



이후 김만덕은 행상으로 돈을 모아 포구에 큰 객주를 차린다. 물건을 위탁받아 팔거나 거간하는 중간상인 역할도 했다. 유통업에 대한 통찰력과 과감한 투자, 모험정신으로 변방이라는 지리

여성 경영인에 대한 벽은 아직 높다. 남성 중심의 집대문화와 편견이 여전하고 가사를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도 상당하다. 그럼에도 여성 경영인이 집중하는 건 특유의 섬세함과 꼼꼼함, 창의성과 서비스 정신이 성공을 부르는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폭예운전 삼가야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는 부주의한 운전자들로 아이들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학교 앞 300m 이내는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에는 이를 표시하는 표지판 등이 설치되어 있다.

했다. 또 우리나라 14세 어린이 10만 명당 사고 인원이 4.1명으로 미국·벨기에·폴란드 등의 3.5명, 일본·스웨덴·영국 등의 1.3명에 비해 현저하게 높다.

최근 기획부동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기획부동산이란 개발 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의 토지를 비싼 가격에 분양해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토지개발 및 매매업을 말한다.

부동산 투기는 세금 중과세 등으로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부동산 투기대척이 발효됐지만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금리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 지급합니다.

Table with Kwangju Ilbo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phone numbers, fax, and website details.